

불교학계도 'IMF한파' 학술지원금 '꽁꽁'

IMF 한파의 영향이 불교학계에 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건축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불교계 학술 활동을 지원해 온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유관기업체, 사찰 등도 학술비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 학술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불교계 최대 지원처인 진흥원은 97년 11개 학술단체의 세미나와 학술지 간행 등에 2백만~1천5백만원 등 총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진흥원의 내부 사정등으로 인해 문화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또 학술단체 대부분이 회비, 사찰보조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사정도 여의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학술단체들은 후원의 조직, 회비 인상, 강좌 개설 등의 자구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진흥원등 내년 지원금 축소 불가피 후원회 강화·강좌개설 등 자구책 절실

다개책으로 학술진흥재단, 대우재단 등의 학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불교학회는 98년도 회비를 30%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종교교육학회도 이같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승강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사사상연구원은 부족한 학술지원

을 마련하기 위해 12월부터 연구원 후원회인 '목우회'(牧牛會)를 결성했다. <불교대사전> 출간을 서두르

고 있어 어느 학술단체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자체 후원단체인 '회향회'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만해사상연구회도 출판 수익, 특별후원금 등의 학술기금 뿐만 아니라 '후원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도 원효학당 강좌를 확대해 여가에서 나오는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향이 있다. 한편 이런 자구책 외에도 학술진흥재단, 대우재단 등 대규모 일반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술지 발간 지원금을 받은 불교계 학술단체는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등 세 곳에 불과하다. 매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비 지원을 받는 곳이 총서백여 학술단체인 점에 비하면 극소수인 셈이다. 불

오종욱 기자

"신문염송에 신라·발해·고려 사료"

김호동박사 23칙 찾아... 刻成者 28명 확인

고려 해심(慈基)선사가 편집한 공안집 <신문염송·禪門拈頌>에는 신라·발해·고려의 사료도 수록되어 있어 문화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호동박사(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는 <신문염송(18집)에 게재된 '신문염송'과 진각국사 해심에서 '신문염송'에 실려있는 공안 1463칙 가운데 23개의 공안에서 신라 승려와 신라, 발해, 고려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다"며 "이것은 '신문염송'이 단지 선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료적 가치도 지닌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문염송>은 고종 13년(1226) 겨울에 해심스님이 조계산 수선사에서 문인 진훈과 더불어 선종의

고화(古話) 1125칙과, 이에 대한 선종의 선사(禪師)의 염(拈) 송(頌) 가(歌) 등의 요어(要語)들을 채집하여 30권으로 기록한 공안집.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밝혀진 23개의 공안 중에서 <신문염송> 권24 1064칙 운문(雲門)의 조적(卓錫)에 대한 고칙은 운문스님의 생몰연대가 864~949년임을 감안할 때 신라 말기 빈번히 출몰한 산적들의 주요 공격 대상중의 하나가 사할로 당시 어지러운 상황을 전달해 준다.

<신문염송> 권25 1107칙인 무찰(無刹)에 관한 고칙은 중국으로부터 불법을 적극 수용했던 고려초기와 당시 관음신앙이 상당히 퍼져 있었음을 알려 준다. 관음신앙은 현실적인 고난을 겪는 대중의



어려움을 구제해 준다. 신앙이다. 또 <신문염송> 30권 1010장에서 각성자(刻成者) 28명을 확인한 김박사는 <신문염송> 권6권 35장을 작성한 원경(元卿)은 김준이 제거한 후 자결한 장군 손원경(孫元慶)과 동일인"이라며 "이것은 <신문염송>이 대장도감에서도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반출신인 손원경은 1237~1243년동안 대장경 작성에 참여한 인물.

인간의식에 드러나는 세계는?

조환기씨 '表象과 識에 대한 고찰' 발표

인간의 의식에 드러나는 세계는 무엇인가. 또 무엇이 이들을 드러내게 하는가.

인도철학회 연구 발표회에서 '표상(表象)과 識(識)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조환기씨(동국대 강사)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란 없고 단지 식 이외에는 없다는 유식(唯識)의 표(表)와 식(識)의 연관성에서 해답을 찾아 주목된다.

조씨는 <섭대승론>에서는 11식으로 바뀌어 식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며 "일종의 심리현상처럼 의식에 떠돌아 분별작용의 근거가 된

다"고 설명했다. "무엇을 경험한다"는 말을 할 때, 경험은 거의 현재성을 띄고 있지만 과거 경험의 결과 없이 현재의 경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푸른 하늘을 본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와 경험 대상들을 지칭하는 인식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푸른 하늘을 본 경험이 없다면 '내가 푸른 하늘을 본다'는 언어적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1명의 범부에 대해 호랑이는 먹음직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성인이 보면 뼈두더기라고 말할 것처럼 하나의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조씨에 따르면 산란한 의식이 지멸된 상태인 사마타(奢摩他)가 이루어진 후 이러한 심리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조환기씨는 "사마타 후에 의식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들은 과거 뿐이지 대상이라는 실재가 없다는 것이 유식무경(唯識無境)의 근거가 된다"며 "따라서 유식무경이란 인식작용을 하는 근거인 식(識)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드러나는 표(表)에 대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원효학회 워크숍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지난 15~20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효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효학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박성태교수(동국대 석좌교수)의 '원효사상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비롯해 '불교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김용표), '불교의 논리·원효사상 해석 방법론'(조성택), '기독교와의 만남'(전현), '서양철학과의 만남'(이명섭) 등이 발표·토론했다. <차주상보>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지난 15~20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효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효학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박성태교수(동국대 석좌교수)의 '원효사상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비롯해 '불교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김용표), '불교의 논리·원효사상 해석 방법론'(조성택), '기독교와의 만남'(전현), '서양철학과의 만남'(이명섭) 등이 발표·토론했다. <차주상보>

학술단신

조계종 불학연구 논문공모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는 '근대 승가 교육사'를 주제로 △한국불교근대사에서 승가교육 △근대 교단의 승가교육 △근대 전통 강원 △일제의 종교 정책 등을 연구한 학술 논문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스님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재가불자로 내년 1월20일까지 집필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원고지 150~200매 분량의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02) 732-4921

'북한문화재 해설'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탑, 부도, 비, 당간지주 등 불교문화재를 포함 북한지역의 석조문화재를 정리한 '북한 문화재 해설'을 12월말경 발간한다. <북한 문화재 해설>에는 고려시

대에 건립된 개성 현화사 7층석탑, 법왕대 다층석탑(조선), 유점사 9층석탑(조선), 장영사사 3층석탑(고려), 해주 9층석탑(고려) 등 석탑 67기를 비롯해 부도(16기) 비 당간지주 총 1백50여건의 북한 석조문화재에 대한 도판과 해설이 수록된다.

정영호교수(한국고원대·석탑) 소제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부도) 등이 해설을 맡았다. (02)737-8477

22일부터 지관스님 강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이 △선전(禪典) 강독 △한국 불교 금석학 등의 특별 강좌를 마련했다.

지관스님은 '선전 강독'에서 선종서에 있어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알려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강의하고 <역대고승비문(朝鮮시대편)>을 '한국불교 금석학'에서 각각 다룬다. 강좌는 12월22일부터 시작됐다. (02)765-9602

www.suanmok.org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Not Search | Not Directory | Updates

The Home | The Teacher | The Teaching | For Laity | Enlightenment Links

수안목 사원

수안목 사원'은 태국불교의 사회 운동을 주도해 미국·유럽 불교인의 존경을 받았다. 부다다사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태국불교의 수행법을 살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수안 목은 부다다사 스님이 1932년 태국의 남부지역 해안가 숲속에 세운 사원.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적 환경관을 설명하고 있는 '정신적 생태학을 보존한다는 것', 무엇이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말해주는 '미움 병의 치료', 윤회 사상을 쉽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반', 수안 목 사원의 수행법을 알려주는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입문', 인간의 승과 실수가 인생을 가두는 것이라고 말하는 '창상없는 교도소' 등 △외국인을 위한 교리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부다다사 스님의 법어·글에서는 법어뿐만 아니라 스님이 태국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했던 '불법의 사회주의(Dhammic Socialism) 전문도 읽을 수 있다. 또 △어린이를 위한 구도만화(Dhamma Cartoon)에서는 도강(渡江)' 등 선만화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suanmokk.org/

구미 패선계 '禪 바람'

다도와 명상 등 동양풍이 인기를 끌고 있는 구미의 패선계에 선(禪) 바람이 일고 있다. 드리스 반 노트, 요지 야마모토, 레이 가와쿠보 등 구미의 톱 디자이너들이 주도하는 선(禪)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재단법과 무채색의 흐릿한 파스텔톤. 전체적으로 구도하는 스님을 연상시키는 차림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인 '에트로'도 98년 컬렉션에 '선'을 도입했다. 도나 카란은 97추동시즌에 넉넉한 품의 무채색 옷들을 내놓는데 이어 98 봄여름 컬렉션에도 얇고 비치는 소재의 심플한 의상으로 '선'을 표현했다. 패선 관계자들은 "사회 저변에서 동양적 요소가 주목 받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패선계에서 한동안 '선'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소식

태국 세계최대 火葬

2백여명의 태국 스님들이 집전한 세계 최대 화장장제가 15일 태국 방콕에서 거행됐다. 스님들이 연고자 없는 1백여 시신과 2만1천여개의 뼈조각들을 정성껏 화장했다.

태국에서는 그동안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시신들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어왔다. 최근 태국 정부가 방콕의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를 건설하자,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공동묘지에 묻어있는 시신 중 가족이 없는 시신들을 모아 화장시킨 것. 이번 화장장제는 불교전통에 따라 진행됐으며 천도제도 함께 열렸다.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소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욱 옮김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소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소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찬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는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필멸 삶이 승려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코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예(無碍行)를 실천하며 일체의 가치와 위신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매도와 폭설을 서슴지 않았다.

신곡판 / 520원 / 값110,000원

범구경

범구경은 나를 완전히 빌가버렸다! 나는 허상의 웃음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곡판 / 220원 / 값65,0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물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곡판 / 430원 / 값170,000원

란트라비전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곡판 / 220원

부처님의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곡판 / 400원 / 값170,000원

판차란트라

갈로수외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토 비쉬누 사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곡판 / 440원 / 값170,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 조 임 남
MAJU JOSHU RIMJAI NANSEN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리줄 것입니다.